

취임 2년차 보폭 커진 자승 총무원장

# 안정 기반 다지고 도약대 올랐다

## “종책모임 심부름 말라” 국장들 경고… 개신교 불교편혜 난제

최근 개신교의 불교편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도를 높여가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불교계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다.

이 같은 대외적인 환경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성공회 김근상 주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가칭) '증오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증오방지법'은 미국의 증오범죄처벌법과 혐오범죄방지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제정하자는 법이다. 종교적 갈등을 범불교도대회 개최 등 그간의 해법이 아닌 법적정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제33대 집행부의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제32대 집행부에서 총무부장을 지낸 원학 스님은 “개신교의 불교편혜가 심상치 않다”며 “종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갈등을 ‘증오방지법’이라는 법적정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은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종단구성원에게 자승 총무원장이 정부와 국회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15대 중앙총회 선거로 자승 총무원장이 종단 내 구성원의 역량을 모으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많다.

자승 총무원장의 권력기반인 종책모임 화엄회는 제15대 중앙총회에서 전체 81석 중 28석을 차지하며 거대 종책모임으로 급부상했다.

거대 종책모임 화엄회의 탄생은 보림회 무차회 무량회 등 계파간 연대와는 별도로 자승 총무원장에게 강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통해 취임 2주년에는 승가 노후복지, 승가교육개혁, 종단 재정 확충 등 종단 현안들이 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반 강화는 자승 총무원장의 리더십까지 강화시키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집권 2년차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와 종단 재정 확충 의지를 표명했다. 종단 소임자에게는 공심(公心)을 거듭 강조했다.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는 11월 12일 대구불교총연합회 불교편혜 영상을 제작한 성공회 대구 교회 조 모 신부를 대신해 사과방문했다. 김 주교는 사과와 상호존중의 의미로 성공회 미사에 사용되는 성친구를 자승 스님에게 선물했다.

이날 자승 총무원장은 “개신교의 불교편혜가 위협스러운 부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불교는 우물 안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의 조그만 샘에서 물이 흐르는 정도였다. 해외사찰의 포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등 자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 방문시 개최의사

를 밝혔던 ‘2013 세계종교지도자 포럼’을 언급할 때는 “개회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총무원 국장들을 상대로는 공심을 거듭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책모임의 심부름을 해서 안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최우선으로 종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공심이 실현되는) 종무행정을 위해서라면 일반적 총무원을 국장으로 발탁하거나 국장의 공채를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달라진 자승 총무원장의 행보가 지난 1년간 안정의 기반을 닦은 조계종을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10·27 법난 시효소멸 없다”

### 손해배상 승소 이끌어낸 위대영 변호사

10·27 법난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성격규정이 되었지만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난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알려진 해성 스님(도선사 회주)의 소송 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판결은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스님들이 더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난과 같은 국가차원의 반인도주의적 불법행위는 시효소멸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판에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10·27 법난 보고서를 발표한 2007년 10월 25일에서 3년이 경과한 지난 10월 25일로 법난 피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이 행복을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국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와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가치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위 변호사는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기록을 구하는데 나라기록관에서 보내준 자료가 부실해 부장판사의 지시를 통해 겨우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조차 해성 스님에 관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실명 등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수행자가 개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편견과 과거사를 들추

기 꺼려하는 피해 스님들이 입장을 바꾸는 일이었다.

위 변호사는 “스님들이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 해성 스님의 경우 금전적인 것보다 법난으로 피해 입은 스님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나서셨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재판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서 달라고 했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시효소멸이 없다고 판결한 만큼 스님들이 더욱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100자 뉴스

#### 진각종 진기 64년도 수계관정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11월 8-9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대구 남산3동 희락심인당에 개설된 삼매아계단에서 진기 64년도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보행했다. 이번 수계관정불사에서는 서울계단 141명과 대구계단 174명 등 315명이 보살심선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 원학스님 미술원 개원 지역민 문화강좌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경산 삼화사 청목미술원을 개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원학 스님은 청목미술원에서 서예, 사군자, 동다송을 직접 강의 지도하며, 화가 김중구 선생은 문방사보, 전각을 강의한다. 또 매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 감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 김양식 한인문화연구회장의 특강도 마련됐다. 첫 강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원학 스님은 국전 초대작가로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2009년에는 불교중앙박물관 내 갤러리에서 수행산아 그려온 56점의 산수화와 심군자, 화조, 서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053)853-9777

이성언 기자

#### 고경사 낙성식 및 집안법회 봉행

영월 대불교조계종 고경사(주지 고경)는 11월 5일 고경사 대법당에서 낙성식 및 집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혜 스님을 비롯해 종단 임원 및 고경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정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의 마음으로 불자들을 바르게 이끄는 도량이 되자”고 당부했다. (033)373-7833 노덕현 기자

#### 고운사 천년솔향학생 백인장 및 사생대회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31일 고운사 경내에서 제3회 천년솔향 학생 백인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사생대회와 백인장에 경북도 내 초·중·고생 200명 씩 총 400명이 참석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백인장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미적 사고와 정서의 균형 있는 발달시키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전통 한지등(燈) 공모전 결과 발표

불족위원회는 “제11회 전통 한지등(燈) 공모전 결과 ‘상생의 울림’ 등 3작품이 공동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월 10일 발표했다.

금상에는 ‘상생의 울림’(장유나) ‘영원에 대한 갈망’(이기범), ‘월(圓)’(이은동, 박석희) 작품이 선정됐으며 은상, 동상, 특선, 입선 등 1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족위는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작품은 없었지만 금상을 3점 선정했다. 입선작도 늘려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작가발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 『논어』 자한편(子罕篇)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별해야 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 圓覺經

### 완전한 깨달음



이제영 강의  
신국판 / 318쪽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달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에 밝히고 있다.